

누적 방문객 1900만명...아시아와 세계 잇는 허브로

개관 10주년 맞은 ACC

콘텐츠 66% 자체 창·제작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 창출
지역 상징 랜드마크로 우뚝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문화예술발전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900만명을 돌파하며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는 개관 이래 최대인 32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CC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전시·공연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예술 시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ACC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선보인 1910건의 콘텐츠 중 66%인 1255건을 직접 창·제작했다. 실제 랩 프로젝트 수행과 국제 레지던시 운영, 융복합 콘텐츠 전시관의 상설 운영 등이 창·제작 기반 확대의 동력이 돼 다양한 실험적 전시와 공연들이 ACC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ACC의 이 같은 성과는 관람객 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융복합콘텐츠 전시 '디어 바바노냐-해항 도시 속 혼합문화'와 '이음지음'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각각 20만 관람객 수를 넘어섰고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ACC 미래상 2024: 김아영' 전시는 누적 관람객 8만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블랙박스 극장 활용·오월 가치 확산 위한 콘텐츠 선배

블랙박스 극장도 ACC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AC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공연을 창·제작해 선보였다.

더불어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포함해 설립된 ACC는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가족의 사연을 담은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 '오월어머니의 노래'의 사연 중 하나인 故문재학 군의 사연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을 통해 광주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오월 이야기 퍼즐',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오월 정신을 이해하는 간접 경험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융복합 창·제작 강화 및 국제 교류 성과

ACC는 융복합 창·제작 발전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예술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창·제작 스튜디오 및 융복합 연구개발 실험실(Lab) 등을 운영하며 각종 국제 전시



ACC가 지난해 'ACC 5월 레퍼토리' 공연으로 재창작해 선보인 '나는 광주에 없었다'. ACC 제공

에 초대받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9회째를 맞은 ACC의 대표 축제인 'ACT(Arts &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거장은 물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거쳐 갔다.

ACC의 교류협력 성과도 두드러진다.

ACC는 현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 권역은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를 통해 전통음악, 차세대음악, 전통공예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를 통해 그림책 및 문학 분야를 위주로 교류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아시아무용위원회'를 구

축해 전통무용 장르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며 서아시아는 시각예술 및 디자인 장르를 위주로 교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문화자원 보존과 아시아 개도국의 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2018~2021), 라오스(2022~2025)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2022~2025) 등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직원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까지 수혜국 및 수혜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관 10주년 기념하는 다채로운 전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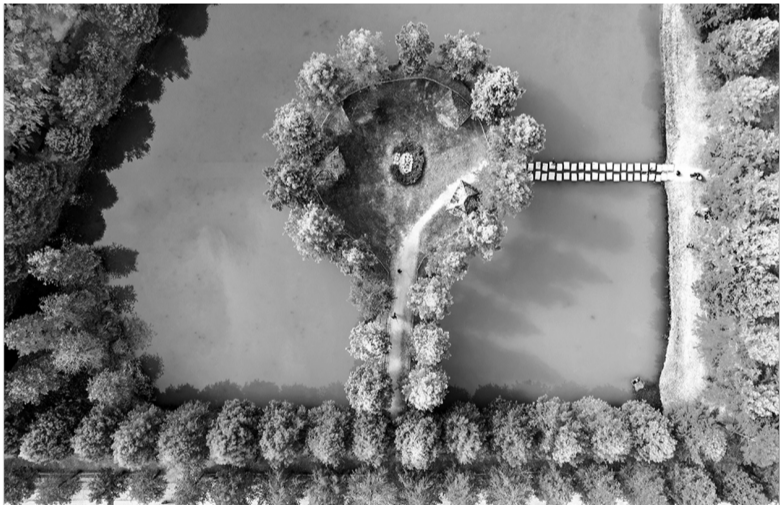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마련된다.

아시아 연출가 3인의 문화 해석이 담긴 유니버설 연극 '아시아 연출가 3부작: Remapping Asia', 미디어 판소리극 홍보가 '제비노정기' 등은 ACC의 고도화된 문화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들로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지역작가 전시'와 '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고 자본세담론을 예술적 실천 방식으로 탐구하는 대규모 특별 상설전시 '봄의 선언', 분야별 전문가 및 석학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ACC 개관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서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2~4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서커스,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해외 우수 초청 공연 '더 펄스(The Pulse)'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0월에는 ACC 개관 10주년 기념 야외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무대와 객석, 아티스트와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더 크고 넓은 비전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허브 역할을 지속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김영근 작 '오색으로 물든 담양'.

인간의 눈높이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담아내다

김영근 '남도의 숨결, 드론에 담다'

드론으로 담은 자연 등 40여점
내달 5일부터 광주 금봉미술관
전남도청·광주시청 순회 전시

현직 사진기자가 35년간 기록해 온 남도의 자연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개최된다.

김영근(58) 기자의 사진전 '남도의 숨결, 드론에 담다'가 다음달 5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순회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5~21일 광주 금봉미술관에서, 2월 23일~3월7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한 뒤 3월10~15일에는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도의 숨결, 드론에 담다'라는 주제로 김 기자가 드론으로 담은 40여점의 사진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

안갯벌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되짚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남도의 갯벌은 한 폭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또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의 새벽안개는 경이로움 그 자체다.

이 외에도 담양 관방제림, 장흥 매생이밭,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백리섬섬길 등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가슴 아픈 수해 현장도 선보인다.

김 기자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시각의 예술 작품을 만나 볼 특별한 기회다. 남도의 자연과 풍경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며 "사진 속에서 남도의 숨결과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기자는 1991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1996년 경향신문을 거쳐 현재는 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로 재직 중이다. **박찬 기자**

광주예술의전당 GAC 기획공연 프로그램 '다채'

특별기획공연·포시즌·포커스 등
책·음악 접목한 인문학 콘서트
"알찬 공연... 위로와 희망 전달"

광주예술의전당은 다채롭게 마련된 올해 상반기 GAC기획공연 프로그램 일정을 발표했다.

21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GAC 기획공연은 △오케스트라 초청 특별기획공연 △포시즌(For Season) △포커스(Focus) △11시 음악산책 △아트워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특별기획공연은 국내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을 넓히고, 독창적인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6월11일 홍석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카미유 토마 첼리스트가 광주를 찾아 위촉작 노재봉 '디오라마', 파쉴 사이 오케스트라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이어 10월에는 아시아 최초 2019 그라모폰 어워드 '올해의 오케스트라'에 선정된 흥풍필하모닉이 광주를 방문한다.

동시대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선보이는 '포시즌'의 올해 첫 무대는 3월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노부스 콰르텟'의 공연이다. 브람스 특유의 서정성과 구조미를 섬세한 표현력을 통해 선사할 예정이다.

5월3일에는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오는 3월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포시즌' 공연에 나서는 '노부스 콰르텟'.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인 코리아 '제이든 이직-드주르코' 공연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그는 2024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캐나다 방송공사(CBC)가 선정한 '30세 이하 주목할 만한 캐나다 클래식 음악가 30인'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포커스'는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가 4월17일 소극장 무대에 오르고 5월9일에는 독보적인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닐로(Nilo)'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1시 음악산책'은 화요일 오전 11시,

해설과 영상, 연주 등 예술과 음악을 접목한 마티네 콘서트다. 올해의 주제는 '명작(名作)'으로 책과 그림, 음악을 결합한 인문학 콘서트를 8회 공연한다.

또한 가정의 달에 맞춰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디즈니 인 콘서트'를 5월2일 개최한다.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영상을 배경으로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과 오케스트라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올해 개관 34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